

## 한국수어에서 형용사 범주와 어순 문제\* \*\*

남기현\*\*\*

강남대학교 수화통번역학과

### 《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수어에서 형용사의 어순, 즉 명사 앞과 명사 뒤 어느 위치에서 수식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9명의 농인들이 유도 과정에 참여하였고 그들로부터 형용사 어순이 나타나는 문장을 이끌어냈다. 분석한 수는 173개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적인 의미 유형인 ‘크기’, ‘나이’, ‘평가’, ‘색’ 형용사는 명사 앞에 위치하여 명사를 수식하였다. 둘째, ‘물리적 속성’은 명사 앞과 뒤에 위치하는 수치가 비슷하였다. 셋째, ‘속도’, ‘용이’, ‘유사’, ‘적격성’의 일부는 명사 뒤에서 수식하였다. 넷째, ‘인간 성향’, ‘속도’, ‘양’의 일부는 서술어로 나타났다. 의미 유형별로 형용사의 어순이 분명한 경우는 핵심적인 의미 유형뿐이었고 나머지 의미 유형에서는 개별 어휘마다 어순이 달랐다.

주제어 : 한국수어, 어순, 품사, 형용사

\* 본 논문은 2016년 6월 25일 한국수화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하였음.

이 논문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유도 자료 제작에 도움을 주신 용인은혜농인교회 고덕인 목사님, 자료 수집을 위해 장소를 마련해주신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도봉구지부 김삼열지부장님과 언어제공자들을 섭외해주시고 유도 작업을 진행해주신 이목화선생님, 유도 자료 제시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 차광희 사무국장님, 그리고 언어제공자로 참여하신 9분의 농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4579)

\*\*\* 제 1저자,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수화통번역학과 강사(chironam@hanmail.net)

## 1. 서론

품사는 어떤 언어의 특징을 알기 위해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지만 한국수어에 비해 연구의 역사가 길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수어 연구에서도 품사 연구는 미흡하였다(Schwager & Zeshan, 2008: 509). 수어에서 품사 연구의 대표적인 예는 미국수어에서 형태적으로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명사와 동사 쌍의 형태적 구별을 제시한 연구이다(Supalla & Newport, 1978). 한국수어 명사와 동사 쌍의 연구에서는 명사의 경우는 ‘입모양’ 다음으로 통사적 구성에서의 단어의 위치인 ‘분포’가 명사를 구별하는 기준이었고, 동사의 경우는 ‘수동’에 이어 ‘분포’가 동사를 구별하는 기준이었음을 제시하였다(남기현, 2015). 한국수어는 한국어처럼 교착어가 아닌 고립어와 같은 성격을 띠므로 명사와 동사 쌍에서 분포, 즉 어순은 명사와 동사를 구별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수어에서 명사와 동사 외에 또 다른 품사 연구는 형용사 어순에 관한 것이다(엄미숙, 1996; 원성옥 외, 2013; 이영재, 2013; MacLaughlin, 1997; Padden, 1988; Bernath, 2010; Loos, 2015). 한국수어 형용사 어순에 대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형용사는 한정적인 방식보다는 서술적인 방식으로 문장 안에서 나타나며 명사 앞에 위치하기보다 뒤에 위치하여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원성옥 외, 2013; 이영재, 2013). 그러나 엄미숙(1996: 45)은 형용사가 명사 앞에 위치하여 수식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어 반드시 명사 뒤에 위치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수어에서 형용사의 어순 문제는 의미 유형별로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수어에서 형용사의 의미 유형별 수식을 위한 원형적인 위치를 핵심적인 의미 유형(TALL, NEW, WHITE)과 주변적인 의미 유형인 인간 성향(FUNNY, STUPID, HAPPY), 물리적 성질(COLD, DRY, SOFT), 신체적 상태(SICK, HEALTHY, DRUNK)를 의미하는 12개의 단어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가 있다(Loos, 2015). 그는 미국수어에서 수식을 위한 원형적인 자리는 명사 앞이며 핵심적인 성질과 물리적인 성질의 단어는 명사 앞의 수식어로서 사용되는 강력한 경향성이 있으며 인간 성향의 단어는 명사 뒤에 위치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미국수어에서 형용사가 수식어와 서술어로 사용된 경우는 각각 55.6%와 44.4%이었고, 수식을 위해 선호되는 자리는 명사 앞이 76.6%이었고 명사 뒤의 자리는 23.4%이었다. 또한 SICK, STUPID, FUNNY, HAPPY, HEALTHY가 형용사 명사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Bernath, 2010)와 달리 이 단어들은 명사 앞에서 수식어로 사용되었다. 핵심적인 성질 단어가 명사 앞에서만 사용되는 강한 경향성은 관찰되지 않았고 다른 의미 부류보다 수식 위치에서 더 자유로운 듯 보였다. 덜 원형적인 수식어들은 수식과 관련된 통사적 위치에서 발생할 필요가

있지만 더 원형적인 것들은 어디에서나 발생하는 것이 자유롭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본 연구는 한국수어 형용사의 의미 유형별 어순의 특징을 밝히고자 다음의 연구 목적을 가진다.

첫째, 한국수어 형용사는 의미 유형별로 어순 상의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한국수어 형용사는 수식어로 기능한다면 명사 앞에 위치하는가?

셋째, 한국수어 형용사는 수식어로 기능한다면 명사 뒤에 위치하는가?

## II. 이론적 배경

Dixon(2004: 1)은 모든 인간 언어에서 품사 ‘형용사’가 분명히 인식될 수 있다고 하였다. 어떤 언어에서는 형용사는 명사와 어떤 언어에서는 동사와 어떤 언어에서는 명사와 동사와 유사한 문법적 특성을 가지며, 어떤 언어에서는 명사와 동사와 유사한 문법적 특성을 가지지 않는다. 즉 형용사는 동사형, 명사형, 동사-명사형, 비동사-비명사형으로 네 가지 유형이 있으며 언어 유형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국어의 형용사는 동사와 특성을 공유하는 동사형 형용사이다(유현경, 2003: 189).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을 의미적, 형태적, 그리고 통사적인 측면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

#### 1) 의미적 기준

모든 언어의 어휘적 어근은 수많은 의미 유형에 배치될 수 있다(Dixon, 2004: 3). 구체적인 지시와 관련한 의미 유형은 항상 명사와 연결되며 인간(HUMANS), 신체(BODY), 부분(PARTS), 식물상(FLOA), 동물군(FAUNA), 천상계(CELESTIAL), 환경(ENVIRONMENT), 인공물(ARTEFACTS)을 포함한다. 동사와 관련한 의미 유형은 동작(MOTION), 쉼(REST), 영향(AFFECT), 제공(GIVING), 집중(ATTENTION), 말하기(SPEAKING)를 포함한다.

Dixon(2004: 3-5)에 의하면 형용사의 의미 유형은 13개인데 이 유형 중에서 크기, 나이, 평가, 색은 핵심적인 의미 유형이며 물리적 속성, 인간 성향, 속도는 주변적인 의미 유형이다. 용이, 유사, 적격성, 양, 위치, 기수 의미 유형은 커다란 형용사 부류를 가진 일부 언어와 관련된다. Dixon(2004)은 형용사의 예를 제시할 때

형태적으로 단순한 어휘적 어근에 제한을 두었다.

<표 1> Dixon(2004)의 형용사 의미 유형과 예

의미 유형	형용사 예
크기 (Dimension)	크다, 작다, 길다, 짧다, 넓다, 깊다 등등
나이 (Age)	새롭다, 어리다, 늙다 등등
평가 (Value)	좋다, 나쁘다, 사랑스럽다, 극악하다 등등
색 (Color)	검다, 희다, 붉다 등등
물리적 속성 (Physical Property)	단단하다, 부드럽다, 무겁다, 젖다 등등
인간 성향 (Human Propensity)	질투하다, 행복하다, 친절하다, 영리하다 등등
속도 (Speed)	빠르다, 느리다, 신속하다 등등
용이 (Difficulty)	쉽다, 어렵다, 복잡하다, 간단하다 등등
유사 (Similarity)	같다, 다르다, 비슷하다 등등
적격성 (Qualification)	맞다, 틀리다, 적당하다, 가능하다 등등
양 (Quantification)	많다, 적다, 충분하다, 부족하다 등등
위치 (Position)	높다, 낮다, 멀다, 가깝다 등등
기수 (Cardinal Numbers)	일부 언어에서 독립된 품사를 구성한다.

한국어는 기수에 해당하는 어휘가 없으며 12개의 의미 유형에 걸쳐 분포되어 있고 고유어 계열, 한자어+하다, 외래어+하다, 어근+파생접사(-롭다, -스럽다, -답다)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의 개방적 품사 범주를 이룬다(유현경, 2003: 187).

## 2) 형태적 기준

한국어에서 형용사는 동사와 함께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담당한다. 형용사와 동사는 모두 어미와 결합하여 문장 속에서 실현된다. 그러나 형용사는 활용 형태에서 동사와 차이를 가진다(남지순, 2007: 37-9).

(가a)에서 '강하다'는 현재시제 종결형 활용어미 '-ㄴ다'를 취할 수 없는 반면, (가b)에서 '마시다'는 '-ㄴ다'종결형 어미를 취하기 때문에 형용사로 간주하지 못한다. 또한 형용사와 동사는 종결형 활용어미의 상보적 분포 외에도 현재시제 관형형 연결어미에서도 상보적인 분포를 보인다. (가c-d)에서 형용사는 관형형 어미로서 '-는'을 허용하지 않지만 동사는 허용한다.

- (가) a 인아가 위스키에 강하-(다 + \*ㄴ다)
- b 인아가 위스키를 마시-(ㄴ다 + \*다)
- c (착하 + 못나)-(\*는 + ㄴ) 아이
- d (공부하 + 달리)-는 아이

(가)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어의 형용사와 동사는 활용 어미가 다르다. 그러나 수어는 음성언어와 다른 형태적인 특징을 가진다. 수어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의 표지는 한국어에서처럼 ‘- 이/가’와 ‘- 을/를’과 같은 격을 표지하는 조사를 사용하지 않고 어순이나 수어 공간에서 일치 동사의 시작점과 끝점을 통해 실현된다. 이러한 수어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음성언어의 형태적 기준은 한국수어의 형용사 범주를 위한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

### 3) 통사적 기준

형용사의 통사적 기준에 앞서 인간 언어의 절 유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Dixon(2004: 5)에 의하면 인간 언어의 절 유형은 타동사절과 자동사절이며 많은 언어들은 추가적인 절 유형인 계사 절(copula clauses)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동사가 없는 절인 무동사절이 있다. 무동사절은 동격으로 두 개의 명사구를 포함한다. 계사 동사가 없는 언어는 전형적으로 다른 언어의 계사 절을 무동사절로 번역한다. 가령 ‘[John] [is] [doctor]’를 ‘[John] [a doctor]’로 번역한다.

무동사절은 수어에서도 흔히 관찰된다. 미국수어의 예를 보면 (나a)은 미국수어의 일반적인 표현 방식인데 반해, (나b)는 영어 문장을 미국수어로 표현한 것이다 (Fischer & Gough, 1978). 두 문장은 의미가 다르다. (나a)는 ‘He is a doctor’이고 (나b)는 ‘He really is a doctor’이다. 미국수어에서 BE는 강조 혹은 영어를 미국수어로 표현할 때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나c)는 한국수어의 예로 문장은 두 단어 <그>와 <학생>로 이루어졌고 의미는 ‘그가 학생이다’이다(원성옥 외, 2013: 81). 즉 수어에서는 계사 동사 없이 두 명사구가 동격으로 이어지지만 그 문장을 한국어 혹은 영어로 바꿀 때 계사 절로 번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 a HE DOCTOR  
‘He is a doctor.’
- b HE BE DOCTOR  
‘He really is a doctor.’
- c <그> + <학생>  
‘그가 학생이다.’

다음은 형용사가 문법에서 수행하는 두 가지 기능을 살펴보기로 한다(Dixon, 2004: 7-10).

첫째, 어떤 무엇인가가 어떤 특성을 가졌다는 진술에서 이를 표현하는 두 가지 통사적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형용사가 계사의 보어로 다른 하나는 자동사 서술어로 기능하는 것이다.

둘째, 서술어 논항과 관련된 명사구의 명사 핵의 지시체에 초점을 두는 것을 돕는 명사에서 형용사는 명사구에서 수식어로 기능한다.

(다a)는 영어의 예로써 계사 절에서 CS는 계사 주어(copula subject), CC는 계사 보어(copula complement)를 나타낸다. 형용사가 계사의 보어로 기능한다. (다b)는 피지어의 예로써 S는 자동사 주어(intransitive subject)를 나타낸다. 주어로 기능하는 tama-qu('my father')라는 하나의 핵심 논항을 가진 자동사절이다. 형용사 balavu('long, tall')가 자동사 서술어이다. (다c-d)는 영어와 피지어의 예로써 형용사가 명사구 안에서 수식어로 기능하는 것을 보여준다(원문을 따라서 형용사에 밑줄을 표시함).

- (다) a [my father]<sub>CS</sub> [is]<sub>COPULA PREDICATE</sub> [tall]<sub>CC</sub>  
 b [e balavu]<sub>INTRANSITIVE PREDICATE</sub> [a tama-qu]<sub>S</sub>  
 3sgS tall ARTICLE father-1sg.POSSESSOR  
 'my father is tall'  
 c [the tall man]<sub>S</sub> [laughed]<sub>INTRANSITIVE. PREDICATE</sub>  
 d [e aa dredre]<sub>INTRANSITIVE PREDICATE</sub> [a tagane balavu]<sub>S</sub>  
 3sgS PAST laugh ARTICLE man tall  
 'the tall man laughed'

(다)에서 살펴본 것처럼 두 가지 기능은 형용사의 유형을 확인하는 매개변수이다(Sohn, 2004: 227-8). 첫 번째 매개변수는 형용사가 자동사 서술어 자리 혹은 계사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가이다. 두 번째 매개변수는 명사구 안의 형용사가 명사에 적용되는 형태적 과정의 일부 혹은 전부를 취할 수 있는가 혹은 형태적 과정 일체를 취할 수 없는가이다. 한국어 형용사는 첫 번째 매개변수에 따르면 자동사 자리를 채우며 계사 보어 자리를 채우지 않는다. 두 번째 매개변수에 따르면 한국어 형용사는 명사에 적용되는 수와 격과 같은 형태통사적 과정을 취하지 않는다. 한국어 형용사의 문법적 특징은 주절과 내포절 모두에서 서술어 핵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동사와 유사하지만 형태적 기준에서 구별된다.

## 2. 수어에서 형용사의 어순

### 1) 미국수어에서 형용사 어순

미국수어에서 형용사의 통사적인 분포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MacLaughlin, 1997; Loos, 2015에서 재인용). 미국수어에서 FORMER, BASIC, TRUE/REAL, MAIN과 같은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만 나타날 있고 서술어 위치에서 사용될 수 없다(Loos, 2015: 13).

- (라) a [MAIN POINT]<sub>DP</sub>  
       ‘a/the main point’  
       b \*[POINT MAIN]<sub>DP</sub>  
       c \*[POINT IX]<sub>DP</sub> MAIN (참조: This point is main.)

Padden(1988)과 Bernath(2010)은 일부 단어들은 명사 앞에 오는 것이 금지된다고 하였다(Loos, 2015: 13-4에서 재인용). PLAN, SIT처럼 활동과 SICK처럼 상태를 포함한 일부 단어들은 명사 앞에 오는 것이 금지된다(마a-c). 이 단어들은 명사구에서 명사 뒤에서 발생하고 (마d)에서 SICK은 화제화 된 명사구의 일부를 형성한다. 이 구조는 명사 핵 뒤에 관계절이 따라오는 (마e)에 대응한다. 여기에서 SICK은 형용사가 아닌 동사로 볼 수 있다. 활동의 의미를 가진 PLAN, SIT이 명사 앞에 올 수 없는 것처럼 SICK도 명사 앞에 올 수 없지만 화제화 된 명사구에서는 서술어로 기능을 한다(마d). 동사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는 Klima와 Bellugi(1979)에서 제시한 SICK이 굴절 수정(inflexional modification)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Klima와 Bellugi(1979)는 ‘형용사 서술어(adjective predicates)’라고 명명하고 상을 위해 굴절할 수 있는 서술어로 보았다. SICK의 기본형은 양손 중지 끝을 각각 이마와 가슴에 대고 동시에 접촉하는 수동인데 변형 과정을 겪으면 반복 수동은 사라지고 3회의 부드럽고 연속적인 원형 움직임으로 바뀐다. 이러한 경향적 상(predispositional aspect)을 위한 변형 과정을 겪은 SICK는 ‘아프기 쉬운’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Loos(2015: 9)는 굴절 수정은 동사가 겪는 것이기 때문에 SICK를 동사로 간주하였다.

- (마) a \*INDEX PLAN PERSON  
 ‘intended meaning: He’s an organised person.’  
 b \*INDEX SIT WOMAN  
 ‘intended meaning: the sitting woman.’  
 c \*[SICK BOY]<sub>TOP</sub> GO HOME FINISH  
 ‘intended meaning: The sick boy, ha has gone home.’  
 d [BOY SICK]<sub>TOP</sub> GO HOME FINISH  
 ‘The sick boy, he has gone home.’  
 e [TALL BOY [KNOW YOUR FATHER]]<sub>TOP</sub> GO HOME FINISH  
 ‘[The tall boy[who knows your father]], he has gone home.’

Padden(1988: 113)은 명사 앞에 행동과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올 수 없다고 하였다(Loos, 2015: 14에서 재인용). 미국수어에서 형용사+명사 연속은 절의 해석을 받을 수 없다. THINK는 절 구성소만을 취한다는 가정 하에 BLUE CAR와는 양립할 수 없다(바b). 따라서 명사 앞의 위치는 서술적 기능을 위해 이용할 수 없으며 서술 기능으로만 발생할 수 있는 단어들을 허용하지 않는다.

- (바) a <sub>1</sub>INDEX THINK CAR BLUE  
 ‘I think the car is blue.’  
 b \*<sub>1</sub>INDEX THINK BLUE CAR  
 의도된 의미: ‘I think the car is blue.’

## 2) 한국수어에서 형용사 어순

한국수어에서 품사 문제를 다룰 때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은 교착어인 한국어와는 달리 조사가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어에서 형용사는 서술어로 나타나지만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할 때는 관형형 어미를 취하여 활용한다. 가령 ‘아기가 예쁘다’는 ‘예쁜 아기’로 표현된다. 한국어에서는 관형형 어미를 통해 형태적으로 관형어임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가 없는 한국수어에서는 그러한 형태적 구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음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본고에서 예문을 제시할 때 원문의 표기법을 따랐고 그 외 단어는 < > 안에 넣어 표기하였다.

엄미숙(1996: 43)은 한국수어에서 관형사가 몇 개 존재하며 동사나 형용사가 어떠한 전성 기호 없이 그대로 사용되는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다.



- (사) a 다른            나라            있다            모르다  
**다른 나라에는 있는지 모른다.**
- b 새롭다            교황            뽑다  
**새 교황을 뽑다.**
- c 나            너            끊다            어떤            관계            모르다  
**나와 너 끊어지면 어떤 관계인지 모른다.**
- d 미국            농아인            영어            법            모르다            우습다  
**미국 농아인 영어법 모른다. 우습다.**
- e 주격            목적격            다르다  
**주격과 목적격은 서로 다르다.**

(사a - b)에서 ‘다르다’와 ‘새롭다’라는 형용사가 주어 앞에 위치함으로 ‘나라’와 ‘교황’을 꾸며주는 수식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사c)는 관형사 어휘가 그대로 관형어로 실현되는 경우이고 (사d)는 ‘미국’과 ‘농아인’의 어휘 간의 문법적 의미가 ‘미국의 농아인’이라는 관계를 맺어주고 있다. (사e)는 ‘다르다’라는 서술어의 의미상 비교 대상으로서 두 개의 동격 주어가 되는 문장이다. 정리하면 한국수어에서 관형어의 실현 방법은 체언 앞에 위치하거나 관형사 어휘로 실현되거나 혹은 명사구를 이루는 어휘 간의 의미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엄미숙, 1996: 45).

다음 예문은 한국수어에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한정적 용법보다는 서술적 용법을 선호한다는 것을 제시한다(원성옥 외, 2013: 85). 한국어 문장 ‘아이가 새 옷을 입었다’를 수어로 표현한다면 (아a)처럼 [새롭다+옷] 어순이 아니라 (아b)처럼 [아이+옷+입다]와 [옷+새롭다]로 두 문장으로 나누어 표현한다. 즉 농인들은 ‘새 옷’보다는 ‘옷이 새롭다’의 표현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 (아) a \*〈아이〉    〈새롭다〉    〈옷〉            〈입다〉  
 b 〈아이〉    〈옷〉            〈입다〉    〈옷〉            〈새롭다〉  
 아이가 새 옷을 입었다.

이영재(2013: 79 - 82)는 한국수어는 어간, 접사, 어미와 같은 개념조차 없기 때문에 한국어와 같이 첨가적 성격을 갖는 단어를 만들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통용사(通用詞) 개념을 도입하여 다른 문법 성분을 갖는 단어들을 설명하였다. 한국수어는 해당 수어 기호가 문장 내 위치에 따라 여러 품사로 전성하는 모습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한국어와 많이 다르다고 제시하였다. (자)에서 <먹다>1과 <먹다>2는 형태가 동일하지만 문법 성분은 다르다. <먹다>1은 명사이며 <먹다>2는 동사로 문장

내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이영재, 2013: 82).

- (자) <먹다>1 <썩다> <먹다>2 <말다>  
'썩은 밥은 먹지 말아라.'

(차)에서 <맛>과 <노랗다>는 앞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여 각각 '맛있는 밥'과 '노란 옷'이 된다. 수어 문장이 '명사+서술어1+서술어2'구조처럼 명사 뒤에 서술어 두 개가 연이어 올 때 첫 번째 서술어인 '서술어1'은 앞의 명사, 즉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기능하며, 서술어가 명사 앞에 와서 명사를 수식하거나 다른 통사 성분으로 기능하는 일은 없다고 하였다(이영재, 2013: 85-7).

- (차) a <먹다> <맛> <만들다>  
[밥이 맛있다]를 만들다  
'맛있는 밥을 만들다.'  
b <옷> <노랗다> <예쁘다>  
[옷이 노랗다]이 예쁘다  
'노란 옷이 예쁘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수어 형용사가 의미 유형별로 어순의 차이가 있는지와 형용사가 문장에서 수식어로 기능한다면 명사 앞과 뒤 어느 위치에 오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언어제공자들에게 유도 자료를 제시하여 형용사의 어순이 나타난 문장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1. 언어제공자

본 연구에 농인 여자 7명과 남자 2명이 언어제공자로 참여하였다. 농인들의 연령층은 20대 1명, 40대 3명, 50대 3명, 60대 2명이었다. 한국수어를 배운 시기는 초등학교 때(8명)와 고등학교 이후(1명)이었다. 언어제공자 모두 농학교를 졸업했으며 일상생활에서 한국수어를 주된 의사소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농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였다. 사항에 해당되면 ○로 표시하였다.

<표 2> 언어제공자 정보

언어제공자	성별	연령	수어를 배운 시기	농학교 졸업	농사회 참여	일상생활에서 수어 사용
농인A	여	40대	초등학교	○	○	○
농인B	여	60대	초등학교	○	○	○
농인C	여	60대	초등학교	○	○	○
농인D	여	40대	고등학교	○	○	○
농인E	여	50대	초등학교	○	○	○
농인F	여	50대	초등학교	○	○	○
농인G	여	40대	초등학교	○	○	○
농인H	남	50대	초등학교	○	○	○
농인I	남	20대	초등학교	○	○	○

## 2. 유도 자료

한국수어의 어휘를 품사별로 정리한 사전류가 현재는 부재하기 때문에 형용사 목록을 설정하기 위해 단일 형태소 형태의 한국어 형용사 목록을 참고하였다. Dixon(2004)이 제시한 형용사의 의미 유형 13개 중에서 기수를 제외한 12개를 토대로 하여 각 의미 유형에서 2개의 형용사를 선정하여 총 24개의 형용사 목록을 선정하였다.

<표 3> 한국수어 형용사 유도자료 목록

의미 유형	형용사	명사	자동사
크기	크다	고양이	앉다
	작다	벌레	도망가다
나이	새롭다	자동차	충돌하다
	어리다	남자	자다
평가	좋다	감	떨어졌다
	나쁘다	도둑	도망가다
색	검다	책	떨어지다
	희다	고양이	자다
물리적 속성	부드럽다	빵	매진되다
	무겁다	남자	걷다

〈표 3〉 한국수어 형용사 유도자료 목록(계속)

의미 유형	형용사	명사	자동사
인간 성향	질투하다	남자	울다
	행복하다	남자	웃다
속도	빠르다	남자	움직이다
	느리다	아이	걷다
용이	쉽다	시험문제	남다(빼다)
	어렵다	시험문제	남다(빼다)
유사	같다	마을	살다
	다르다	남자	오다
적격성	맞다	문제 답	적다
	틀리다	시험문제	많다
양	많다	사람	달리다
	적다	사람	자다
위치	높다	빌딩	흔들리다
	가깝다	남자	가깝다 학교 가다

본 연구의 유도 자료는 미국수어에서 형용사의 어순을 연구한 Loos(2015)의 유도 자료와 차이를 가진다. 본 연구의 유도 자료에는 주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 1개, 서술어 혹은 수식어로 기능할 수 있는 형용사 1개와 자동사 1개로 총 3개의 단어를 한 세트의 제시하였다. Loos(2015)는 속성 단어, 원형적인 사물 단어, 원형적인 행위 단어, 서법(CAN, WILL, MUST) 혹은 부정어(NOT)가 포함된 4개의 단어로 구성하였다. 4개의 단어 안에 서법과 부정어를 포함시킨 것은 주어와 서술어의 경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미국수어에서 서법의 선호되는 위치는 동사 앞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Loos(2015)는 서법을 주어와 서술어를 구분하는 표지로 사용하고자 했으나 결과는 계획한 것만큼 성공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연구 참여자들은 문장 마지막 자리에 서법 혹은 부정어를 위치시켰다. 본 연구에서 부정어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부정어가 나타나는 위치 때문이다. 한국수어 부정어는 동사 다음에 온다. 한국수어 어순이 SOV라는 점에서 부정어는 문장 마지막에 온다. 따라서 한국수어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부정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하며 본 연구의 유도 자료에는 부정어를 포함하지 않았다. 유도 자료에서 3개 단어를 선정할 때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단어를 선택할 때 형용사와 자동사가 어느 위치에 오더라도 가급적 의미가 이상하지 않도록 의미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둘째, 자동사는 동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위성 자동사로 선정하여 농인들이 형용사와 자동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혼란을 줄이고자 하였다. 셋째, 1항 자동사로 목록을 구성했지만 <가깝다>의 경우는 행위주인 주어와 장소 보어를 요구하는 2항 자동사 <가다>와 함께 제시하였다. 한국 수어 형용사 유도 자료 목록을 3인의 농인들에게 유도 자료를 제작하기 전에 제시하여 3개의 단어로 문장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는지를 검토하였고 문장을 만들 수 없다고 표시한 경우는 다른 단어로 대체하였다.

### 3. 유도 방법

9명의 농인들에게 3개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구성하도록 요청하였다. 3개 단어는 제시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 화면에 3개 단어를 일렬로 나열하지 않고 삼각형 구도로 배열하였다. 제시된 단어들은 그림이 아닌 수어 동영상이었다. 유도 자료 [고양이-크다-앉다]가 한 세트인데 화면에서 윗줄에는 <고양이>, 아래 줄 왼쪽에는 <크다>, 아래 줄 오른쪽에는 <앉다>가 동시에 제시되었다(<그림 1>). 3개 단어들의 순서는 무작위로 섞었다. 괄호 안에 표기된 [명사-형용사-자동사]는 순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유도 자료에는 한국어의 간섭을 피하고자 한국어를 제시하지 않았다. 청인 연구자로 인한 자연스러운 한국수어 수집에 미칠 언어적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농인 연구자가 수어를 이끌어내고 수집하였다. 유도 작업은 농인 연구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농인들이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농인들과 농인 연구자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서로 친숙하였다. 유도 작업에 앞서 한국수어에서 단어의 순서를 연구하고자 한다는 취지와 촬영 목적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농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3개의 단어를 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 실례를 제공하였다. 그런 다음에 파워포인트 화면에서 제시된 3개의 단어를 보고 문장을 자유롭게 만들도록 요청하였다. 형용사가 수식어 혹은 서술어로 기능하는 문장을 만들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유도 작업에서 나온 수어 문장은 분석을 위해 캠코더로 촬영하였다.



A-1

<그림 1> 유도 자료에서 3개 단어의 배치 구도

#### 4. 분석 방법

##### 1) 분석 절차

연구자가 3개 단어가 나타난 어순을 분류한 다음 두 번의 검토 과정을 거쳤다. 1차 검토는 수어통역과 한국수어를 연구하고 있는 코다인 청인(‘청인 검토자’)이 수어 문장을 한국어 문장으로 번역하였고 그 문장들이 한 문장인지 혹은 두 문장인지 분류하였다. 청인 검토자는 농인들의 수어 문장을 한 문장으로 보았다. 2차 검토는 농인들의 수어에서 불분명하여 확인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선정하여 한국수어를 연구하고 있는 농인(‘농인 검토자’)에게 검토를 의뢰하였다.

##### 2) 분석 자료

일부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도 과정에서 컴퓨터 작동의 오류로 수어를 수집하지 못한 경우(5회), 둘째, 농인들이 수어 산출을 어려워하거나 연구자가 농인들이 무엇을 표현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16회), 셋째, 농인들이 제시된 단어와 전혀 관련 없는 단어로 대치한 경우(5회), 넷째, 형용사를 목표로 하여 제시했으나 명사로 사용한 경우(의미 유형 ‘나이’의 <어리다>), 다섯째, 유도 자료가 복잡하여 목표 문장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한 경우(의미 유형 ‘적격성’의 <맞다>)이다. 농인들은 문장 산출에서 3개 단어 이외에 분류사와 <지시>를 추가하였는데 다음의 이유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 **분류사 추가** : [크다-고양이-앉다-수족 분류사]처럼 ‘앉아 있는 고양이의 모습’을 모방한 수족 분류사(limb classifiers)를 넣은 경우이다. 수족 분류사는 <앉다> 동사 다음에 와서 어순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고 ‘큰 고양이가 옆으로 누워 잔다’라는 추가적인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보아 분석에 포함하였다.

- **<지시> 추가** : [작다-벌레-지시-도망가다]에서 <지시>는 한손 검지만 펴서 검지 손끝을 명사를 산출한 장소를 향해 혹은 앞에 나온 명사를 직접 지시하는 것이다. <지시>는 ‘그것’으로 해석되고 앞에 언급된 명사를 다시 지시한다고 볼 수 있어서 분석에 포함시켰다.

3개 단어 중에서 하나를 생략하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쉽다-시험문제-빼다]에서 시험문제가 2개 단어(시험+문제)로 제시되어 농인들은 2개 중에서 하나를 생략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러므로 제시된 단어가 생략된 경우이지만 [시험-쉽다-빼다] 혹은 [문제-쉽다-빼다]는 분석에 포함시켰다. 또한 유도 자료에는 [시험문제-남다-어렵다]였지만 농인들은 <남다> 대신에 ‘빼다’라는 입모양을 동반하여 <빼다>로 문장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남은 시험문제가 어렵다’와 ‘시험문제를 빼기 어렵다’라는 두 의미가 발생하였다. 입모양이 있는 경우는 <남다>인지 <빼다>인지 구분이 가능하지만 없는 경우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 분석에서는 문장의 의미가 아닌 어순만을 고려하였다.

### III.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형용사가 수식어와 서술어로 나타난 문장, 자동사가 수식어로 나타난 문장, 구 형식으로 표현한 경우를 관찰하였다. 형용사가 수식어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것과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형용사의 위치

본 연구에서는 총 173개의 문장과 구를 분석하였다. 의미 유형별 형용사의 위치를 출현 횟수로 정리하였다(<표 4>). 가령 ‘크다’는 수식어로만 나타났는데, [크다-고양이-있다]처럼 형용사가 명사 앞에 오는 어순(4회)과 [고양이-크다-있다]처럼 명사 뒤에 오는 어순으로 나타났다(2회). 서술어나 구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크다’가 명사 앞에서 혹은 뒤에서 수식하는 어순은 다르지만 두 문장 모두 ‘큰 고양이가 있다’로 해석되어 수식어로 분류하였다.

<표 4> 의미 유형별 형용사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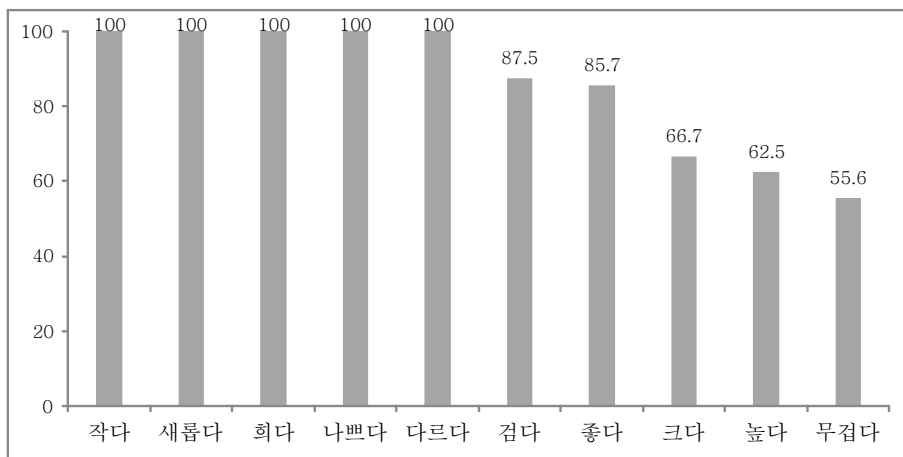
의미 유형	형용사	명사	자동사	수식어		서술어	구	총수
				명사 앞	명사 뒤			
크기	크다	고양이	있다	4	2	0	0	6
	작다	벌레	도망가다	9	0	0	0	9
나이	새롭다	자동차	충돌하다	9	0	0	0	9
평가	좋다	감	떨어졌다	6	1	0	0	7
	나쁘다	도둑	도망가다	7	0	0	0	7
색	검다	책	떨어지다	7	1	0	0	8
	희다	고양이	자다	9	0	0	0	9
물리적	부드럽다	빵	매진되다	4	5	0	0	9
속성	무겁다	남자	걷다	5	4	0	0	9
인간	질투하다	남자	울다	1	0	3	1	5
성향	행복하다	남자	웃다	1	0	4	3	8

<표 4> 의미 유형별 형용사의 위치(계속)

의미 유형	형용사	명사	자동사	수식어		서술어	구	총수
				명사 앞	명사 뒤			
속도	빠르다	남자	움직이다	1	0	3	4	8
	느리다	아이	걷다	3	6	0	0	9
용이	쉽다	시험문제	남다(빠다)	1	6	0	0	7
	어렵다	시험문제	남다(빠다)	1	3	3	0	7
유사	같다	마을	살다	1	7	0	0	8
	다르다	남자	오다	7	0	0	0	7
적격성	틀리다	시험문제	많다	1	4	3	0	8
양	많다	사람	달리다	4	3	1	1	9
	적다	사람	자다	0	0	6	2	8
위치	높다	빌딩	흔들리다	5	3	0	0	8
	남자	가깝다	학교 가다	2	5	0	1	8
				88	50	23	12	173

1)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이다. ‘작다’, ‘새롭다’, ‘희다’, ‘나쁘다’, ‘다르다’는 모두 명사 앞에 위치하여 명사를 수식하였다(100%). ‘검다’는 7회 중에서 6회(85.7%), ‘좋다’는 8회 중에서 7회(87.5%)가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였다. ‘크다’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6회 중에서 4회로 나타났고(66.7%) ‘높다’는 8회 중에서 5회로 나타났다(62.5%). ‘무겁다’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9회 중에서 5회 나타났다(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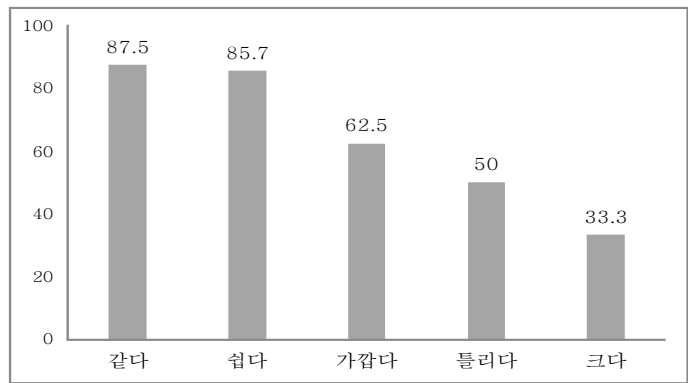


<그림 2> 명사 앞에서 수식한 형용사



2)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명사 뒤에 위치하는 경우는 [마을-같다-살다]는 8회 중에서 7회로 나타났고(87.5%), [시험문제-쉽다-빠다]는 7회 중에서 6회 나타났고(85.7%), [남자-학교-가깝다-가다]는 8회 중에서 5회 나타났다(62.5%). [시험문제-틀리다-많다]는 8회 중에서 4회 나타났고(50%), [고양이-크다-앉다]의 경우는 6회 중에서 2회 나타났다(33.3%). ‘같다’의 경우 <마을> 단어는 수어자와 상대자의 위치에서 산출할 수 있어 두 장소를 지시하므로 ‘함께’라는 의미는 보이지 않으며 ‘같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림 3> 명사 뒤에서 수식한 형용사

3) 명사 앞과 뒤에서 수식이 모두 가능한 경우

명사 앞과 뒤에서 수식이 모두 가능한 경우는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부드럽다’, ‘무겁다’, ‘많다’는 명사 앞에 형용사가 나타난 경우와 명사 뒤에 형용사가 나타난 경우가 1회 차이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 외 자동사가 수식어으로써 명사 앞에 나타난 경우는 전체 173회 출현 횟수 중에서 9회로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5.2%). [웃다-남자-행복하다] (3회), [움직이다-남자-빠르다] (1회), [달리다-사람-많다] (1회), [자다-사람-적다] (4회)였다.

2. 서술어로 나타난 경우

형용사가 서술어로 나타난 경우이다. [사람-자다-적다] (혹은 [자다-사람-적다]), [남자-울다-질투하다], [웃다-남자-행복하다], [시험문제-빠다-어렵다], [움직이다-남자-빠르다] (혹은 [남자-움직이다-빠르다]), [시험문제-많다-틀리다], [달리다-사람-많다]로 나타났다. [남자-움직이다-빠르다]에서 ‘움직이다’는 동사가 아니라 ‘움직임’이라는 명사로 사용

되었다. 즉 ‘남자의 움직임이 빠르다’로 해석될 수 있다. ‘자다’의 경우는 [자다-사람-적다] 어순으로 ‘자는 사람이 적다’라는 의미의 문장을 구사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농인들은 [사람-자다-적다] 어순으로 즉 ‘사람이 잠이 적다’로 표현하였다. ‘자다’를 동사가 아니라 명사 ‘잠’으로 표현한 경우가 4회였다.

### 3. 구 형식으로 나타난 경우

문장 마지막에 자동사 혹은 형용사가 아닌 명사로 끝난 경우가 관찰되었는데 이를 ‘구 형식’으로 분류하였다. 구 형식은 173회 중에서 12회로 나타났다(6.9%). [질투하다-울다-남자] (1회), [웃다-행복하다-남자] (3회), [움직이다-빠르다-남자] (혹은 [빠르다-움직이다-남자]) (4회), [달리다-많다-사람] (1회), [자다-적다-사람] (2회), [학교-가다-가깝다-남자] (1회)이었다. 농인B(4회)와 농인H(3회)가 구 형식을 주로 산출했다.

### 4. 부사어로 나타난 경우

‘느리다’의 경우는 [아이-느리다-걷다] (33.3%)와 [아이-걷다-느리다] (66.7%)라는 두 가지 어순으로 나타났는데 후자의 어순이 전자보다 2배 더 많이 나타났다. 문장의 의미는 ‘느린 아이’가 아니라 ‘아이가 느리게 걷다’로 해석되고 부사어로 사용되었지만 수식어라는 점에서 수식어의 수식 위치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다.

### 5. 세 단어 외에 다른 단어가 포함된 경우

농인들은 문장을 만들 때 3개 단어가 외에 <지시>, 분류사, 그리고 다른 단어를 포함하였다. 추가된 단어들을 굵게 표시하였다. <지시>는 10회 나타났으며(5.9%) 3명의 농인들에게서만 관찰되었다. <남자>를 지시할 경우는 한손의 검지 수형 끝으로 <남자>를 가리켰다. ‘시험문제’를 가리킬 때는 <문제>의 비우세손 손바닥을, ‘마을’(집+장소)에서는 <장소>를 산출한 손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였다. ‘감’, ‘빵’, ‘벌레’를 지시할 경우에는 그것이 있다고 가정한 공간을 지시하였다. 지시를 받는 해당 단어 옆에 위 첨자로 표시하였다.

- [좋다-감-지시<sup>오른쪽 위 공간</sup>-떨어지다], [빵-부드럽다-지시<sup>빵</sup>-매진되다]
- [행복하다-남자-지시<sup>남자</sup>-웃다], [시험문제-어렵다-지시<sup>문제</sup>-빠다]

- [웃다-남자-지시<sup>남자</sup>-보다-행복하다], [시험-남다-문제-지시<sup>문제</sup>-어렵다]
- [남자-지시<sup>남자</sup>-학교-가깝다-장소-가다], [작다-벌레-지시<sup>벌레의 이동 경로</sup>-도망가다]
- [마을-지시<sup>마을</sup>-지시<sup>마을</sup>-같다-살다], [빌딩-지시<sup>빌딩</sup>-높다-지시<sup>빌딩</sup>-흔들리다]

분류사를 포함한 경우는 총 12회 나타났다(6.9%). 고양이, 벌레, 아이, 자동차,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3개 단어 전후에 분류사를 추가하였다. 특히 농인E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중간 과정을 추가적으로 표현하였다. 가령 [좋다-감-나무-나뭇가지-떨어지다]에서 제시된 단어는 [좋다-감-떨어지다]이지만 감이 떨어지기 위해 필요한 <나무>와 **나뭇가지**를 추가하였다. 또한 농인I는 [책-책이 놓여 있다-검다-떨어지다]에서 떨어질 때 전제되는 책이 놓여 있다는 정보를 추가하였다.

- [크다-고양이-앉다-앉아 있는 모습], [작다-벌레-벌레가 기어가는 모습-도망가다]
- [새롭다-자동차-자동차가 달리다-충돌하다], [좋다-감-나무-나뭇가지-떨어지다]
- [검다-책-책을 옆구리에 끼고 있다-떨어지다], [희다-고양이-자다-자는 모습]
- [아이-느리다-걷다-걷는 모습], [많다-사람-달리다-달리다2-많은 사람이 몰려가다]
- [책-책이 놓여 있다-검다-떨어지다], [사람-많다-많은 사람이 몰려가다-달리다]

다른 단어를 추가한 경우는 13회 나타났다(7.5%). 추가된 단어는 제시된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지만 형태가 다르다. <도둑>과 <도둑2>(양손을 펴서 얼굴을 가리는 동작), <자다>와 <자다2>(엄지와 소지만 편 양손을 포개어 코앞에서 떨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움직임), <자다>와 <졸다>, <빌딩>과 <아파트>가 연이어 나타났다. 농인E는 분류사를 추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건의 전개 과정을 세밀하게 표현하고자 단어를 추가하여 나쁜 도둑이 들켜서 도망간다거나 부드러운 빵을 팔아서 매진된다는 의미를 표현했다.

- [정말-나쁘다-도둑-도망가다], [남자-학교-장소-가깝다-가다]
- [나쁘다-도둑-도둑2-들키다-도망가다], [부드럽다-빵-팔다-매진되다]
- [자다-자다2-적다-사람], [사람-자다-졸다-적다], [높다-빌딩-아파트-흔들리다]
- [희다-고양이-자다-자다2], [빌딩-높다-자연히-흔들리다가 쓰러지다]
- [남자-보다-질투하다-울다], [남자-얼굴-행복하다-웃다]
- [자다-사람-둘러보다-적다], [학교-곳-곳-가깝다-남자-걷다]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수어 형용사가 의미 유형별로 어순상의 차이가 있는지와 서술어로 기능한다면 명사 앞과 뒤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형용사 어순의 특징을 의미 유형별로 살펴보고, 형용사와 자동사가 연이어 나타났을 때 수식어와 서술어의 구분 문제, 그리고 구 형식에 관해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의 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 1. 형용사의 어순

크기, 나이, 평가, 색이라는 핵심적인 의미 유형에서 9명의 농인들이 만든 문장의 어순은 다른 의미 유형의 어순과 비교할 때 높은 일치율을 보였다. 핵심적인 의미 유형의 출현 횟수 55회 중에서 51회가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수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핵심적인 의미 유형에서는 형용사가 서술어나 구로 나타난 경우도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수어의 형용사는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이전의 주장(원성옥 외, 2013; 이영재, 2013)과는 불일치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있겠다. 먼저는 한국수어 어순에서 한국어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농인 중에는 청인을 대상으로 수어를 가르치는 강사와 한국어를 한국수어로 번역하여 수어로 전달하는 농인도 참여했기 때문에 한국어의 간섭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나머지 7명의 농인들에게서 같은 결과가 나왔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인들에게 한국어는 학교와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혹은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이다. 특히 한국어에 익숙한 젊은 층에서는 한국어의 어순이 그들의 수어 표현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어 능력과 한국수어 형용사 어순의 관계는 향후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형용사와 동사가 가진 핵심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9명의 농인들은 핵심적인 의미 유형의 형용사의 경우 다른 의미 유형에 비하여 쉽고 빠르게 문장을 만들었다. 가령 ‘큰 고양이’, ‘작은 벌레’, ‘새로운 자동차’처럼 형용사는 지시체의 속성을 의미하고 ‘앉다’, ‘도망가다’, ‘충돌하다’ 등의 동사는 행위를 의미한다. 자동사가 행위의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에 서술어 자리에 위치시키는 것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다. 형용사가 수식어로 나타난 경우는 138회였는데 비해 서술어로 나타난 경우는 23회로 비교적 적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자동사는 행위의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에 서술어로 기능하였다고 본다.

주변적인 의미 유형 중에서 물리적 속성의 형용사 ‘부드럽다’와 ‘무겁다’는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와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이 두

형용사도 서술어와 구로 표현한 경우는 관찰되지 않았고 농인들이 문장을 만드는데도 어려움을 표현하지 않았다. 농인 검토자는 [부드럽다-뽕-매진되다] 어순이 한국어 어순에 대응하여 수어를 구사하는 일명 ‘문장식 표현’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느리게 걷다’에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어 ‘느리다’의 위치는 동사 앞보다 뒤에서 나타난 경우가 2배 더 많았다. 수식어가 피수식어 뒤에 위치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용이’ 의미 유형의 ‘쉽다’와 ‘어렵다’의 경우도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는 두 형용사가 동일하게 7회 중에서 1회로 극히 드물게 나타났다. 이 또한 수식어가 피수식어 뒤에 위치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유사’ 의미 유형의 ‘같다’와 ‘다르다’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같다’는 거의 대부분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어순이 관찰되었는데 반해, ‘다르다’는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어순만 관찰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농인들은 형용사가 명사 뒤에 위치하는 어순을 한국수어의 어순이라고 판단했으나 핵심적인 의미 유형의 형용사는 명사 앞에 위치하는 어순도 허용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모든 의미 유형의 형용사들을 검토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에는 이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수어에서 핵심적인 의미 유형인 크기, 나이, 평가, 색의 형용사 부류의 존재는 분명하게 증명해주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주변적인 의미 유형과 ‘용이’, ‘유사’, ‘적격성’, ‘양’ 등의 의미 유형에 속하는 형용사들에 대한 후속 검토가 필요하겠다.

## 2. 수식어와 서술어의 구분 문제

어순이 [명사-형용사-자동사]일 때 명사 뒤에 오는 형용사와 자동사는 두 가지로 해석되었다. 첫 번째 해석은 형용사가 수식어로 자동사는 서술어로 기능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 해석은 형용사와 자동사 모두가 서술어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 서술어가 두 개이므로 두 문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청인 검토자와 농인 검토자 모두 한 문장으로 보았다. 가령 인간 성향의 형용사 ‘질투하다’에서 [남자-울다-질투하다]와 [남자-질투하다-울다]처럼 형용사와 자동사가 연달아 나온 문장을 산출했는데 농인 검토자와 청인 검토자는 ‘남자가 울며 질투하다’와 ‘남자가 질투하며 울다’로 해석하였다. 농인 검토자는 수식어는 없고 서술어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문장에서 ‘질투하다’를 수식어로 볼 수 있는 표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다음 경우들에서는 비수지 신호가 수식어와 서술어를 구분하였다. [뽕-부드럽다-매진되다]에서 형용사와 명사는 대응하는 한국어 발음과 유사한 ‘뽕’과 ‘부’라는 입모양이 동반되었으나 서술어는 특유의 입모양이 동반되었다. 농인들은 <매진되다>를 표현하면서 입을 살짝 벌리고 혀를 살짝 내미는 혹은 ‘파’와 유사한 소리를 내면서 입을 벌리는 비수지 신호를 동반하였다. 이때 입을 벌리는 비수지 신호는 ‘없다’의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 수어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를 구분하는 단서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정지(pause)와 수동의 속도 변화, 그리고 <지시>의 추가였다. 가령 [고양이-크다-정지-앉다]에서 <크다>를 느리게 수동하면서 ‘키’입모양이 동반되었다. 그 다음에 <앉다>가 천천히 이어졌다. 이에 반해 <크다>가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에는 세 단어가 동일한 속도로 산출되었고, ‘큰’과 비슷한 입모양을 동반하였다. 또한 <지시>의 추가는 주어와 서술어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가령 [빵-부드럽다-지시<sup>빵</sup>-매진되다]는 ‘그 부드러운 빵이 매진되다’라는 의미를 가진 문장을 산출하였다. [행복하다-남자-지시<sup>남자</sup>-웃다]에서는 동사 앞에 ‘행복한 남자’라는 주어 다음에 <지시>를 넣어줌으로써 ‘행복한 그 남자’라는 강조의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문장의 주어를 명확히 밝혀준다고 할 수 있다.

### 3. 구 형식

구 형식은 핵심적인 의미 유형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인간 성향’, ‘속도’, ‘양’에서 12회 나타났다.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되고 서술어는 문미에 온다는 점에서 보면 [질투하다-울다-남자]는 문장이 아닌 구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청인 검토자는 ‘질투하며 우는 사람은 남자이다’로 해석하고 완전한 문장으로 판단하였다. 두 명사구로만 이어지는 한국수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서술격 조사 ‘-이다’를 넣어 번역한다는 점에서 한국수어의 구 형식은 완전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수어에는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부재하지만 농인들은 수어 문장을 완전한 문장으로 읽을 수 있다는 점은 수어 문장의 분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두 언어가 만나서 번역 혹은 통역이라는 과정을 거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인 검토자는 문장 마지막에 동사가 나와야 하며 완전한 문장으로 보지 않았다. 구로 표현한 이유는 3개의 단어로만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한정된 조건에서 나온 결과이며 이러한 표현은 농인들이 일상적으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라고 판단하였다. 유도 과정에서 과제를 수행한다는 입장에서 3개 단어를 무의미하게 나열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구 형식이 문장으로 읽힐 수 있는지는 후속 연구를 통해 밝히는 것이 필요하겠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핵심적인 의미 유형인 크기, 나이, 평가, 색의 경우는 농인들이 문장을 쉽게 만들었고 수식어의 위치도 명사 앞에 오는 강한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대조적으로 주변적인 의미 유형과 그 외 형용사 유형에서는 형용사가 명사 앞에 위치하여 수식하려는 경향성이 강하지 않았다. 3개의 단어로 문장을 만드는 것이 농인들의 실제적인 언어 표현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어순의 특징을

충분하게 이끌어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농인들이 분류사와 <지시>를 추가한 것은 보다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는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더 많은 농인들의 수어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수어 능력과 어순의 관계, 한국어 능력과 어순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 참고문헌

- 남기현 (2015). 한국수화의 명사-동사 쌍 연구. **언어정보**, 20호, 43-74.
- 남지순 (2007). **한국어 형용사 어휘문법**. 서울: 한국문화사.
- 엄미숙 (1996). 한국수화의 통사론적 특징 분석.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원성옥, 허일, 김만영, 김유미, 남기현, 배재만, 변강석 (2013).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시리즈 1-수화통역의 기초**. 서울: 교우사.
- 유현경 (2003). 형용사. **새국어생활**, 13(2), 187-204.
- 이영재 (2013). 국어와 한국수화언어(KSL)의 관형어 비교 연구. **서울농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총동창회 문집**, 74-88.
- Bernath, J. (2010). Adjectives in ASL. 10th Theoretical Issues in Sign Language Research, 162-163. Purdue University, West Lafayette.
- Dixon, R. M. W. (2004). Adjective Classes in Typological Perspective. In R. M. W. Dixon & A. Y. Aikhenvald(Eds.), *Adjective classes: A Cross-linguistic Typology*(pp. 1-4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oos, C. (2015). A class of their own? Adjectives in ASL. 미간행논문.
- MacLaughlin, D. (1997). The structure of determiner phrases: Evidence from American Sign Languag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Boston.
- Fischer, S. & Gough, B. (1978). Verbs in American Sign Language. *Sign Language Studies*, 18, 17-48.
- Klima, E. & Bellugi, U. (1979). *The Signs of Langua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adden, C. (1988). *Interaction of morphology and syntax in American Sign Language*. New York: Garland.
- Supalla, T., & Newport, E. (1978). How many seats in a chair? The derivation of nouns and verbs in American Sign Language. In P. Siple (Ed.), *Understanding Language through Sign Language Research*(pp. 91-132). New York: Academic Press.
- Sohn, H. (2004). The adjective classes in Korean. In Adjective classes: A Cross-linguistic Typology. In R. M. W. Dixon & A. Y. Aikhenvald (Eds.), *Adjective classes: A Cross-linguistic Typology*(pp. 223-24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3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7권 3호)

- Schwager, W., & Zeshan, U. (2008). Word classes in sign languages: Criteria and classifications. *Studies in Language*, 32(3), 509-545.
- Tkachman, O., & Sandler, W. (2013). The noun-verb distinction in two young sign languages, *Gesture*, 13(3), 253-286.



## Adjectives and order in Korean Sign Language

Nam, Ki-Hyun  
Kangnam University

### <Abstract>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word order of adjective in Korean Sign Language, focusing on whether adjectives occur in prenominal position or postnominal position. 9 Deaf informants participated in the elicitation. We analyzed 173 tokens and found out the sentences that present the adjective position from informants.

This paper provides four findings: First, the 'size', 'age', 'value', and 'color' adjectives locate before and modify the noun. Second, the 'physical property' has similar locating percentage in both prenominal and postnominal position. Third, some parts of 'speed', 'difficulty', 'similarity', 'quantification' adjectives come and modify after the noun. Forth, some parts of 'human propensity', 'speed', and 'qualification' appear as predicate.

To conclude, only the core semantic type has the obvious order of adjectives. The rest of semantic types show different orders in individual words.

**Key Words** : Korean Sign Language, word order, part of speech, adjectives